

SRI

정책리포트

2020. 07. 31.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원시 지역상권 영향 분석

이성호*, 최석환, 정수진, 조용준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2sungho3@suwon.re.kr

요약

- 수원 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집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경제 및 상권별 영향을 분석
- 코로나19 확산기에 수원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의 약 17%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대면접촉업종과 비필수 업종, 교통중심지 상권일수록 더 큰 매출감소 경험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부활동이 위축되면서 가정 내 활동과 소비의 증가로 인해 근린상권, 생활 관련 업종, 주말 소비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거나 일부 증가하는 경향
-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체적인 소비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는 확인할 수 있으나 업종별 효과 및 지속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필요

정책제안

-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 및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해 다음의 후속연구를 제안
 - ①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상권 구조 및 특성 심층분석 연구 추진
 - ③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신규 정책의 실효성 확인을 위한 지속적 추적 조사 및 타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 연구 추진

수원시정연구원 수시보고서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기존 일상생활 방식과 경제활동 양상이 전면적으로 변화
 - 항공·여행 등 특정업종의 직접적인 영향을 시작으로 글로벌 분업과 공급망 체계의 위기 등 산업·고용 측면의 영향 확산
 -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언택트(untact) 방식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활동의 온라인 전환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온라인 소비의 확대로 인해 지역경제, 특히 지역상권의 영향과 피해 역시 확대
 - 국내 감염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활동과 비필수적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의 타격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증대
 - IT기술과 물류혁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영역이던 신선식품 마저도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에 장기적·구조적 영향 우려
-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양상에 더해 재난기본소득¹ 지급이라는 신규 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필요
 - 전례없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그 양상은 지역별, 업종별, 여건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만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
 - 특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된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한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의 발생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지역상권이 받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정

1 수원시와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하였고,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유사 정책에 대해 상이한 명칭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관련 정책들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통칭하였음.

- 수원시 차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빅데이터 분석(소지역별 카드 매출액 데이터)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경제의 영향 파악
 - 지역별, 업종별, 매출규모별, 이용자 특성별, 상권별 영향 등 코로나19 대유행 하에서의 지역경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력과 도시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도입 논의의 기초자료와 토대 제공
- 지역상권 특성 분석을 통해 재난 등의 긴급상황시 지역경제 대응방안 및 장·단기적 도시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과 정책수단 모색 가능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BC카드의 수원지역 카드 결제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 정도를 분석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BC카드 가맹점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승인 월별 집계자료를 활용
 -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승인건수, 승인액, 가맹점 위치, 가맹점 업종, 가맹점 연간 매출액 규모, 사용시간대, 사용자 연령, 사용자 거주지역 등임
 - 상권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동 및 집계구 단위 데이터를 모두 활용
- 분석의 대상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개월이며, 2019년 10월과 11월의 평균거래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월별 매출지수를 산출
- 코로나19 이전의 일반적인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는 기준값(=100)을 2019년 10월과 11월의 월간 거래액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이후 월별 변화정도를 측정
- 카드사별 거래유형의 차이가 없다는 전제 하에 BC카드의 거래승인 자료가 수원시 전체 매출액 변동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
- BC카드의 업계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24% 정도로, 수원시 전체 경향을 일정수준 이상 반영 가능

※ 본 보고서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 선정을 통해 지원받은 것임

II. 코로나19는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1 코로나19의 발병추이와 주요 대응

1) 코로나19 진행 경과

-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의 신종 전염병 발생 공식 인정을 시작으로, 2020년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 중국 정부의 인정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인접국가를 넘어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확산 시작
 - 국제보건기구(WHO)는 1월 15일 사람 간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였으며, 불과 보름 후에는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
- 국내에서는 1월 말부터 중국 우한시 입국자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국내 확산 우려는 그리 높지 않은 상태를 유지
 - 1월 20일 중국인 입국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우한 교민과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감염자 발생
 - 초기에는 우한교민 귀국문제 등 중국 일부 지역의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 지속
-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이 현실화 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상대응 조치 확대
 -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고강도 조치들이 연속적으로 도입·시행
 - 오프라인 기반의 경제·사회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전사회적 영향에 직면
-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는 일련의 정책 도입 본격화
 - 3월 24일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10만원) 지급 결정을 계기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중앙정부 역시 선별적 지급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국내 방역대책의 성과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경제·사회활동이 점차적으로 재개 중

[표 2] 코로나19 관련 주요 일지

일시	세 계	국 내	수원시
2019년	11.17 : SCMP 우한폐렴 의심 환자 발생 주장, 중국정부 부인 12.31 :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환자 집단발생 공식 시인	-	-
2020년 1월	1.9 : 중국 첫 사망자 발생 1.15 : WHO, 사람간 전염 가능성 인정 1.21 : 미국 첫 확진자 발생 1.23 : 유럽 첫 확진자 발생(프랑스) 1.30 :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사태 선포	1.20 : 국내 첫 확진자 발생(중국인) 1.24 : 국내 첫 내국인 확진자 발생(우한 입국 남성) 1.27 : 감염병 위기 경보 상향(주의→경계) 1.30 : 국내 첫 2차 감염자 발생 1.31 : 우한 교민 368명 임시항공편 귀국	1.22 : 수원시재난안전T/F단 구성 1.28 :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2020년 2월	2.2.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필리핀) 2.11 : WHO, COVID-19 명명 2.23 :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 2.28 : WHO, 코로나19 위험 수준 최고단계로 격상	2.18 : 대구 신천지교회 첫 감염 사례 확진(31번 확진자) 2.20 : 국내 첫 사망자 발생(청도 대남병원) 2.21 :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2.23 :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수준 상향 2.23 : 전국 유·초·중·고 개학 연기 2.26 국내 누적 확진자 1천명대 진입 2.29 국내 일일 확진자 최다 발생(909명)	2.2 : 수원시 첫 확진자 발생(우한 귀 국자, 국내 15번 확진자) 2.5 : 첫 지역내 감염 발생(15번 확진 자 인척, 전국 20번) 2.18 : 수원시 자체격리시설(유스호스 텔) 운영 시작 2.26 :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 설 운영 시작
2020년 3월	3.11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13 :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3.19 : 이탈리아 사망자 수 중국 초과	3.9 : 공적마스크 5부제 시작 3.22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3.24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3.30 : 정부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 원금 지급 결정	3.3 :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발생(생 명섬 교회, 총 10명) 3.5 :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휴원 연 장(-3.22)
2020년 4월	4.7 : 미국 확진자 40만명 돌파 4.27 : 우한 확진자 전원 퇴원	4.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4.9 : 온라인 개학 실시(고3, 중3) 4.23 : 정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4.3 :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4.9 :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2020년 5월	5.15 : WHO, 소아 괴질 코로나바이러스 연관 경고	5.6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5.7 :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 발생 5.11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5.20 : 초·중·고교 등교수업 시작(고3) 5.27 :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발생	5.11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 령 시행
2020년 6월 이후	7.1 : 유럽연합, 한국인 입국 허용	6.1 : 마스크 5부제 폐지 6.8 : 모든 초·중·고교생 등교수업 시작 7.12 : 공적 마스크 판매 종료	7.1 : 수원시 확진자 100명 돌파

2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의 양상

- 분석대상 시기(2019년 10월~2020년 5월)은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 가능
 - 2019년 10월~12월 :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
 - 2020년 1월~3월 : 코로나19 확산 시기.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진 2~3월은 코로나19 영향의 정점에 해당
 - 2020년 4월~5월 : 코로나19 진정 및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기. 성공적인 방역성과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활동 점차 재개
-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수원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

1)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의 일반 양상

- 수원시 전체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월에 최저 수준을 형성
 - 2019년 10/11월 평균액을 100으로 할 때 2020년 3월에 17% 정도 감소한 83.71을 기록
 - 구별로는 팔달구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25% 이상이 감소하였으며, 권선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 약 10% 정도 감소
- 신용카드 매출액은 4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의 수준을 거의 회복
 - 2020년 4월에는 매출지수가 전월 대비 6% 이상 증가한 89.25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동일한 수준까지 회복
 - 권선구와 영통구는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
 - 4개 구 중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가 가장 컸던 팔달구는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시기 매출 감소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상황

[표 3] 코로나19 이후 수원시 월별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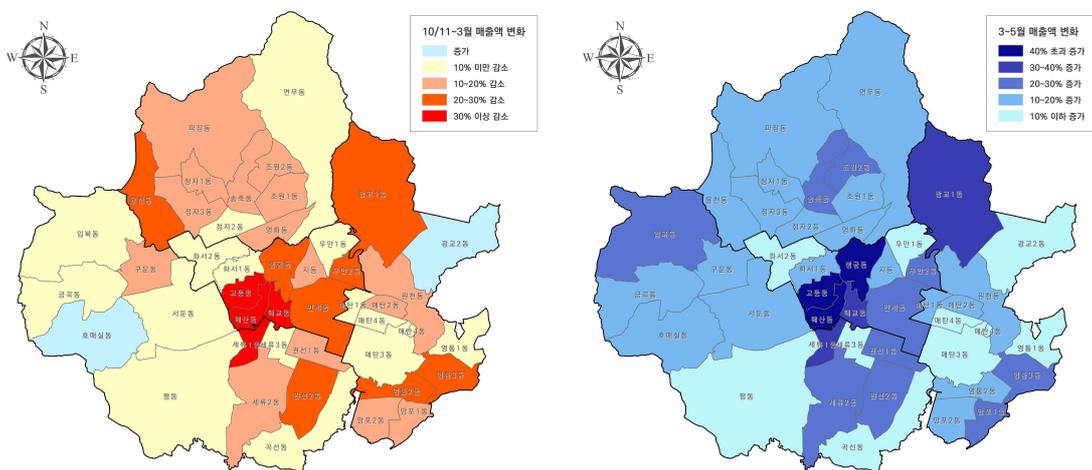
구분	10-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원시 전체	100.00	103.77	98.94	84.91	83.71	89.25	100.06
장안구	100.00	100.79	97.08	85.63	84.63	88.41	99.19
권선구	100.00	102.56	100.44	88.71	89.68	93.81	103.32
팔달구	100.00	105.98	98.83	78.81	74.36	81.13	94.96
영통구	100.00	104.52	98.75	87.34	87.40	94.15	102.96

○ 동별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호매실과 광고를 제외한 수원시 전역이 매출 감소를 경험

- 수원시의 중심상권인 원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팔달구의 동들과 인계동, 영통 등의 매출액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짐
- 호매실과 광고2동은 유이하게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신규점포 입점 등 상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주거 위주의 신도시 지역으로 거주지 인근의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

○ 코로나19 진정 시기에는 앞서 매출 감소폭이 컸던 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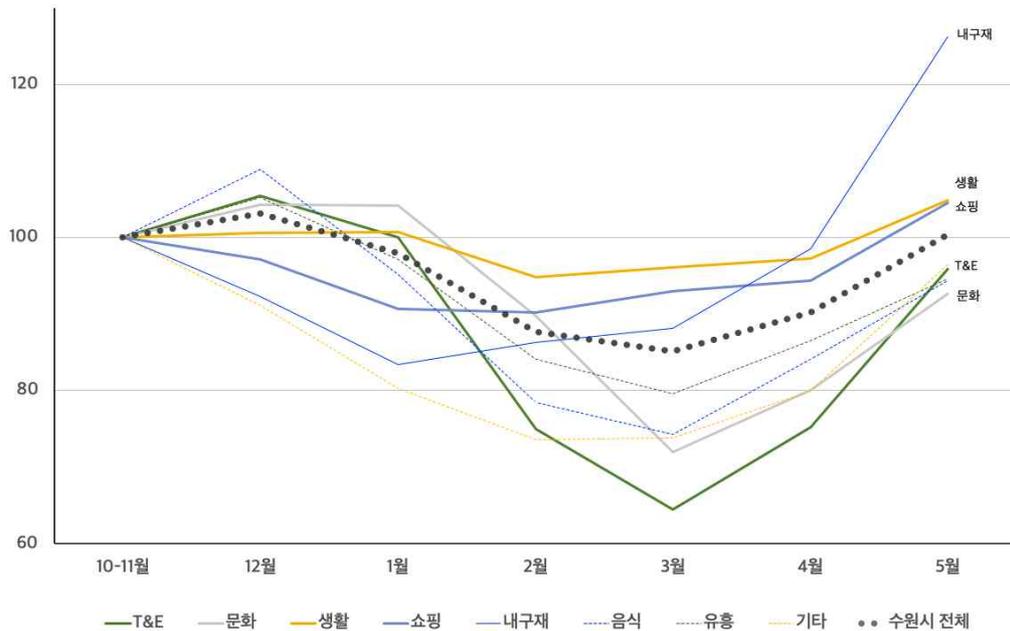
- 고등동, 매산동 등 코로나19 확산기에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경험한 지역에서 매출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남
- 하지만 고등동, 매산동, 세류1동의 5월 매출지수는 각각 94.57, 88.0, 80.24로 행정동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매출 감소폭이 큰 상태



[그림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별 매출액 변화(左: 10·11월~3월, 右: 3월~5월)

2) 가맹점 특성별 코로나19 영향 양상

- 가맹점의 업종대분류에 따른 매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T&E(Travel and Entertainment)와 문화 업종임
 - 여가 관련 산업으로 대표적인 비필수 소비영역에 해당하는 T&E와 문화업종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격하게 매출 감소
 - 가장 큰 매출 감소를 겪은 T&E 업종의 3월 지수는 64.44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 이상의 매출이 감소
-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업종은 생활과 쇼핑² 업종으로 약 5% 내외의 매출 감소만 발생
- 4월부터는 전체 업종에서 매출 회복 추세가 나타나며, 매출 감소가 적었던 생활, 쇼핑 등 일부 업종은 이전 수준 이상을 회복
 - 대체적으로 3월까지의 매출 감소 수준에 비례해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내구재와 T&E 업종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
 - 내구재의 경우 매출 감소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가전, 자동차판매 등 하위업종 대부분에서 큰 폭의 매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



[그림 2] 업종대분류별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2 <생활> 업종은 연료판매, 유통업, 직물, 자동차정비, 의료기관, 보건/위생, 음식료품 등이 해당하며, <쇼핑> 업종은 의류, 신변잡화 등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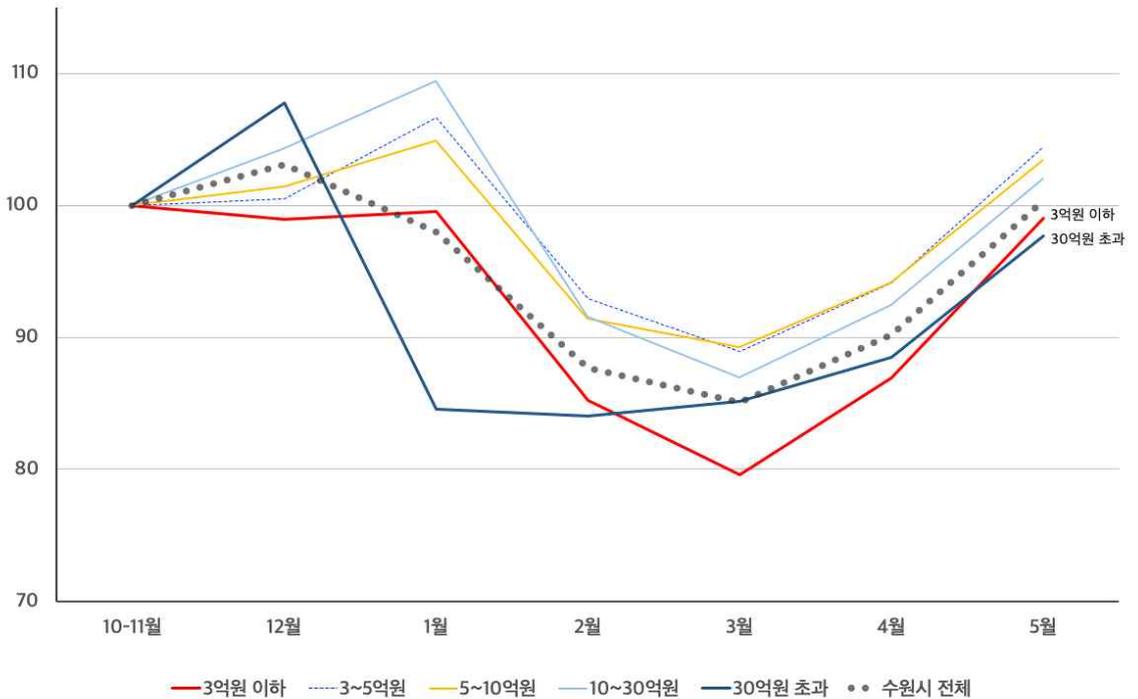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업종소분류를 기준으로 2019년 10·11월과 2020년 3월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감소 발생
 - 월 1,000건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존재하는 94개 업종 중 75.5%에 해당하는 71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발생
 -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업종 역시 22개 업종(23.4%)에 달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
- 특히 학원 등 교육관련 업종과 수영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실정
 - 업종소분류 중 가장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사무기기로 재택근무 확산, 창업 감소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10/11월에 비해 1/300 수준으로 감소
 - 각급 학교의 개학연기와 학원 휴원 권고 등이 이어지면서 초중고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각종 학원들 역시 큰 타격
- 이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는 오히려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증가
 - 서점과 회원 등 가정 내 여가활동과 관련된 업종은 이전 시기에 비해 매출이 대폭 증가
 - 외식 및 외출의 감소에 따라 정육점, 농축수산물과 슈퍼마켓의 소비 역시 증가

[표 4] 코로나19 확산기 업종별 매출 변화 정도 (10·11월 - 3월 매출액 비교)

감소율 상위 10개 업종		증가율 하위 10개 업종	
업종	증감율	업종	증감율
사무기기	-99.7%	인터넷종합Mall	85.4%
초중고 학원	-99.3%	일반서적	44.2%
수영장	-85.7%	농축협직영매장	27.3%
예체능학원	-83.6%	세탁소	27.3%
영화관	-82.9%	회원	26.3%
구내매점	-77.6%	정육점	23.1%
기타교육 학원	-69.1%	슈퍼마켓	20.6%
신발	-64.0%	공공요금	15.0%
사우나	-63.2%	기타전기제품	14.3%
외국어 학원	-62.6%	농축수산물	13.4%

*10/11월 기준 월 승인건수 1천건 이상의 업종만을 대상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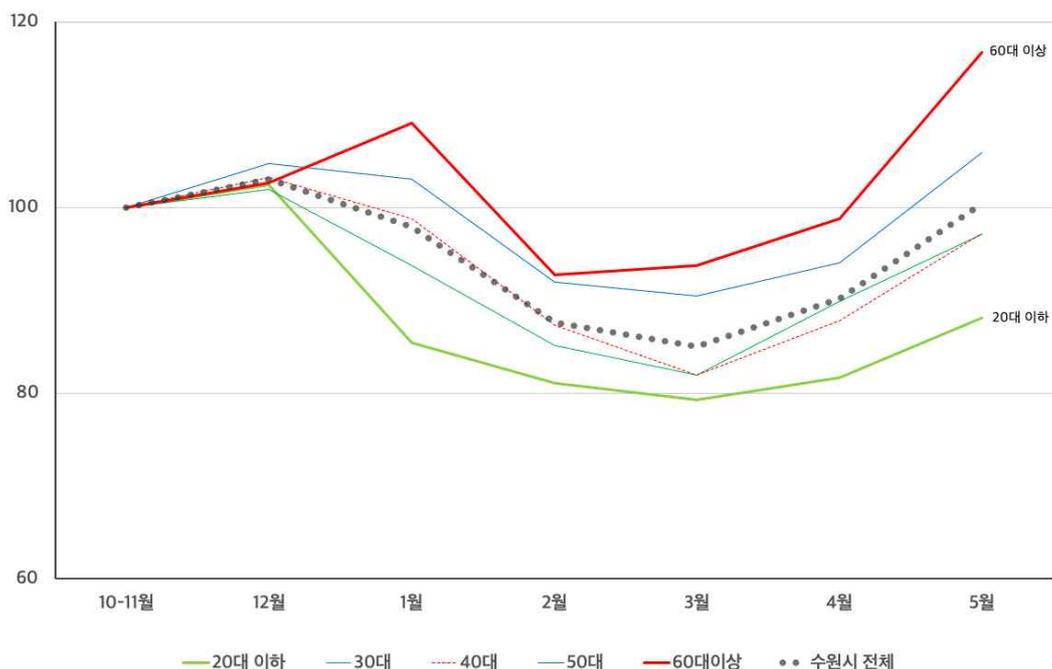
- 매출액 규모에 따른 영향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이 상대적으로 큰 매출감소를 경험
 -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확산기에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데, 특히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한 3월에 심각한 매출 감소 경험
 - 연매출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대유행에 들어가기 전인 1월에 급격한 매출 감소를 보인 반면, 2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여 타 유형과 구분되는 패턴을 보임
- 자영업자 중심의 영세가맹점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및 여유자금 등이 가장 부족한 취약계층임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크게 직면하였을 것으로 예상
 - 4월 이후 영세가맹점의 매출 회복속도는 타 유형에 비해 빠른 편이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가맹점에 비해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실정
 -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역시 5월까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기에 매출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정



[그림 3] 매출액 규모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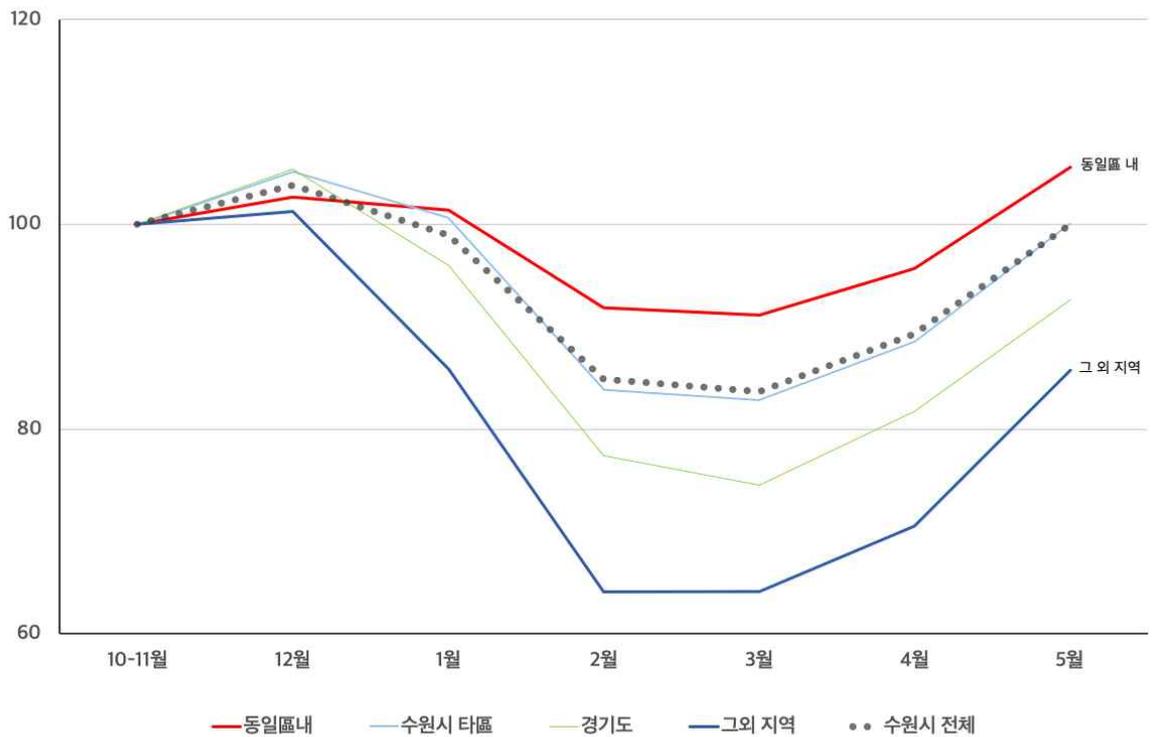
3) 사용자 특성별 코로나19 영향 양상

- 사용자 연령별로 구분해서 매출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소비 감소가 타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남
 - 소비 감소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활동 자체의 축소를 의미하는 만큼, 젊은층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미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
 - 20대 이하의 급격한 소비 감소는 대학 등의 개학연기 및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라 외부활동이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이 제한되었다는 점의 영향으로 판단
- 소비 감소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사용자 연령과 부(-)의 관계를 형성
 - 사용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 감소의 정도나 낮으며, 4월 이후 소비수준 회복의 기울기 역시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세대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식료품 등 가정 내 필수 소비에 대한 기본수요로 인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
 - 50대 이상의 경우 5월에는 소비 회복이 두드러져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영향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4] 사용자 연령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 사용자 거주지별로 구분해 소비 변화를 살펴보면, 원거리 거주자일수록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짐
 - 소비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그 외 시·도 지역으로 2020년 2월과 3월의 매출지수가 65 이하로 감소(2월 64.10, 3월 64.17)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따라 원거리 이동 자체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근무하는 타지역 거주자의 직장 주변 회식 등 소비 활동이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
- 수원시 내에서도 거주지 인근에 해당하는 동일 행정구 내의 소비는 적은 영향을 받은 반면 타 행정구에서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비를 위한 활동범위가 수원시 범위가 아닌 거주지 인근의 근린 지역으로 더욱 협소하게 한정
 - 코로나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기본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일 행정구 내의 소비는 5월 이후 오히려 이전 수준 이상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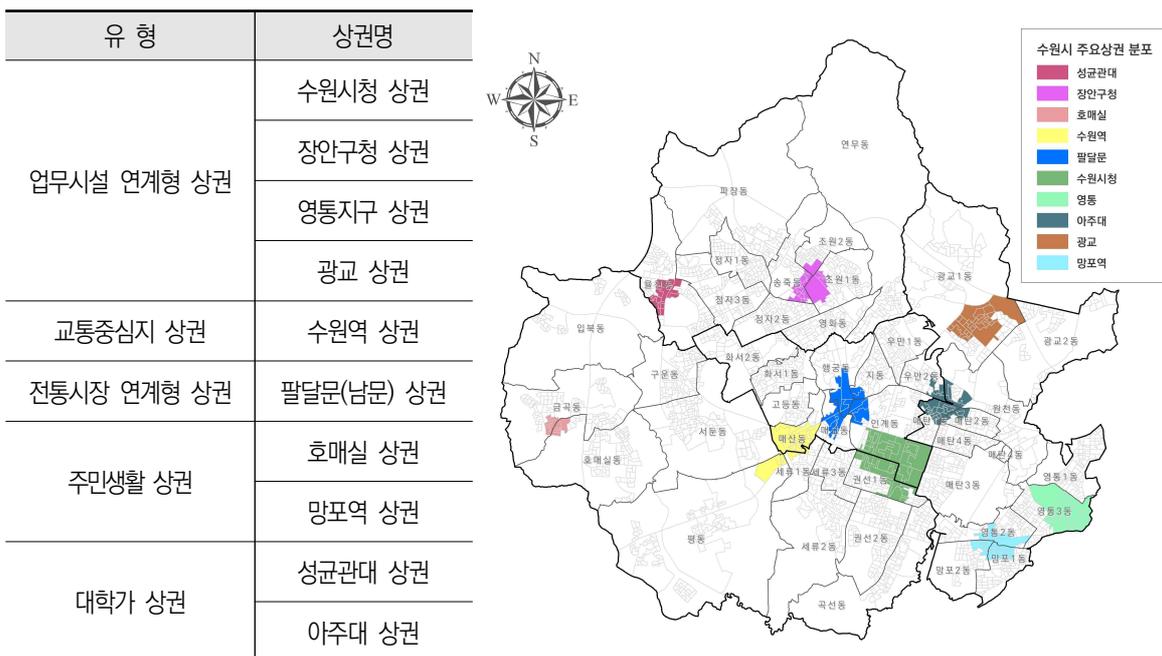


[그림 5] 사용자 거주지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3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상권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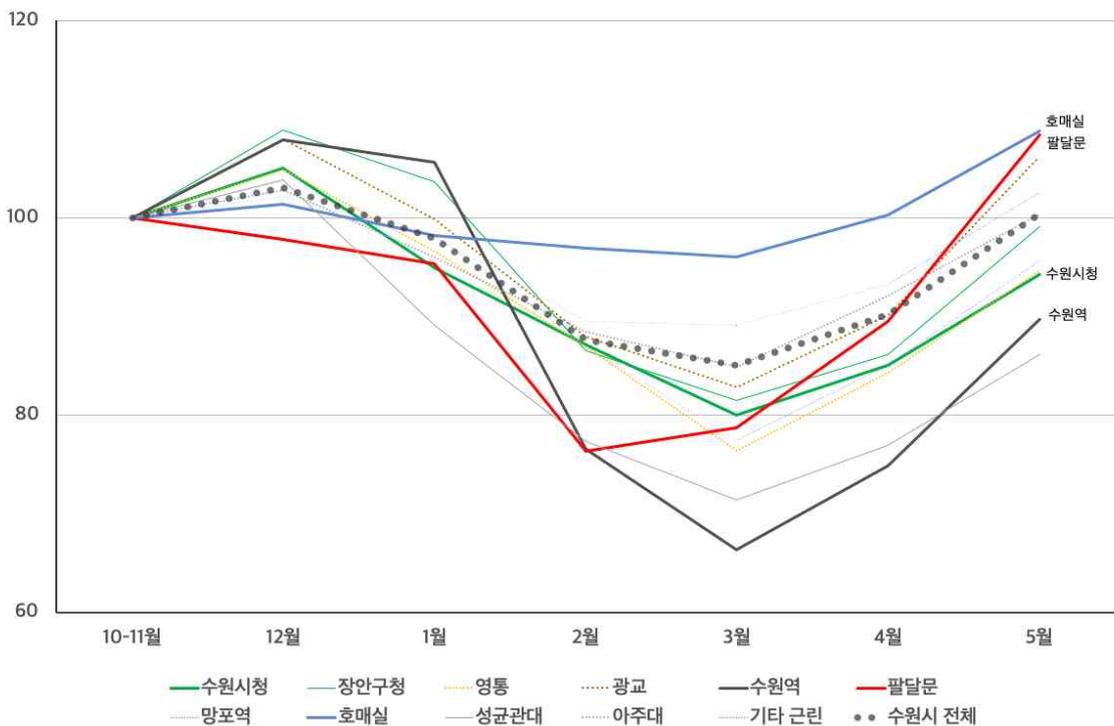
- 수원 내 주요 상권별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0개의 주요 상권을 설정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과 김도영(2019)의 수원시 상권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10개의 주요 상권을 선정
 - 상권의 범위는 두 데이터에서 제시한 상권 범위를 기준으로 집계구 단위로 설정
 - 10개 주요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일반 근린지역으로 별도 분류
- 10개 상권은 그 특성에 따라 업무시설 연계형 상권, 주민생활 상권, 교통중심지 상권, 전통시장 연계형 상권, 대학가 상권 등으로 구분 가능
 - 상권특성에 따른 유형분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유형 분류 기준을 활용
 - 업무시설 연계형이 수원시청(인계동) 상권 등 4개로 가장 많으며, 주민생활 상권과 대학가 상권이 각 2개, 교통중심지 상권과 전통시장 연계형 상권이 각 1개임

[표 5] 수원시 주요 상권 현황



- 대체적으로 교통중심지 - 업무시설 연계형 - 주민생활의 순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상주인구 및 생활밀착형 업종의 비중과 상관관계를 가짐

-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생활 상권과 일반 근린지역의 매출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반면,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
- 수원시 주요 상권 중에서 코로나19 확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교통중심지형 상권에 해당하는 수원역 상권과 대학가 상권인 성균관대 상권임
- 수원시 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수원역 상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접촉 및 다중이용 시설 기피 현상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성균관대 상권은 방학 시즌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더해 가장 매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상권
- 전통시장 상권에 해당하는 팔달문(남문) 상권의 경우 매출 감소와 회복에 있어 코로나19의 시기별 영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원역 상권과 마찬가지로 2월에 매출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4월 이후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전의 매출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회복
- 수원시청, 장안구청, 영통 등 업무연계형 상권은 상권별 변화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채 일반적인 시 전체의 경향성과 유사하게 변화



[그림 6] 주요 상권별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Ⅲ. 코로나19, 변화와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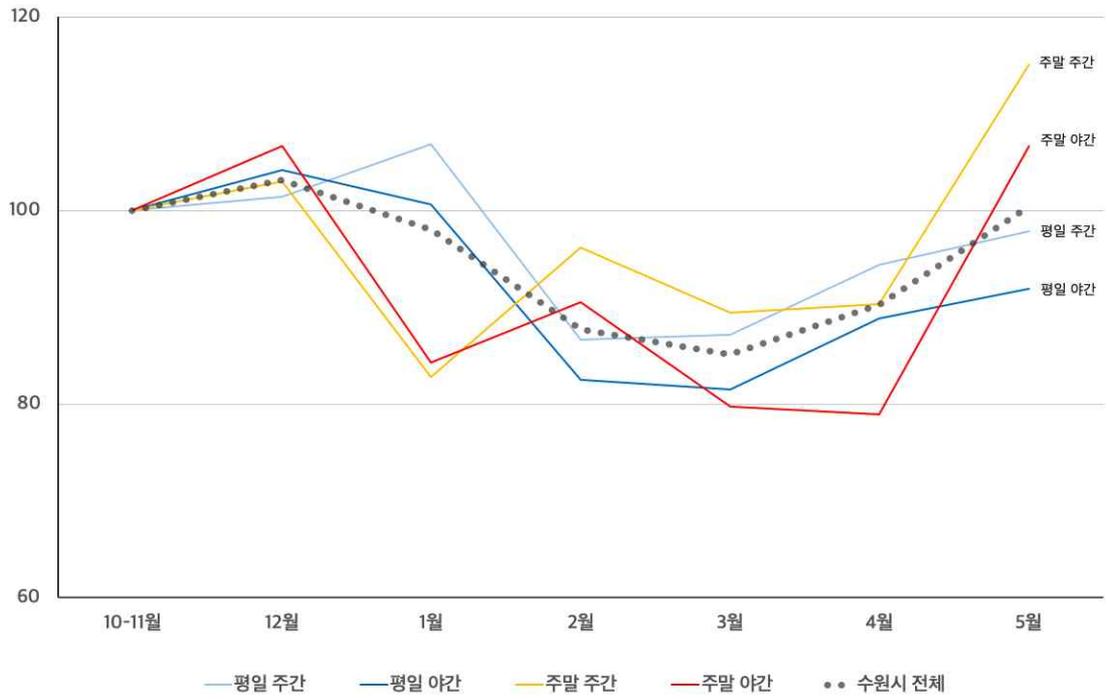
1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

1) 가족과 함께 집에서, 주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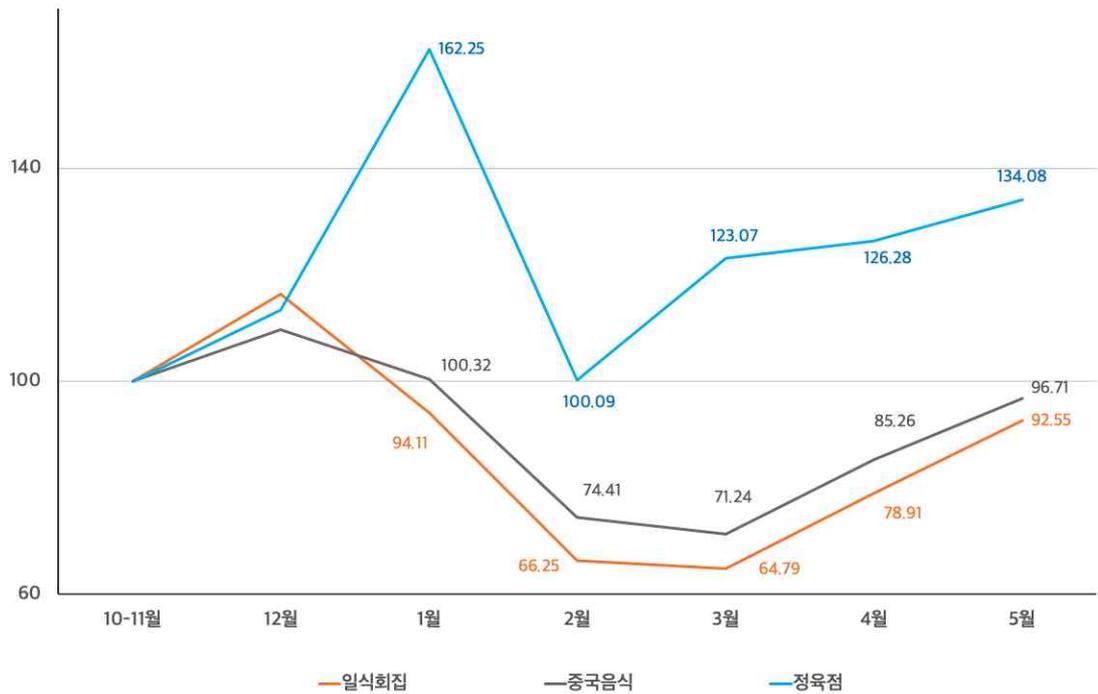
-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수원시 관내의 소비 패턴은 요일 및 시간대에 따라 상이한 양상
 - 평일의 경우 일반적인 추세와 비슷하게 2~3월에 소비 감소가 발생하지만, 4월 이후에는 다소 회복하는 양상
 -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월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2월의 소비 증가와 4월 이후의 급격한 소비 확대 현상이 특징적임
- 코로나19 이후 불필요한 외부활동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평일의 일상활동은 위축되는 반면, 오히려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필수소비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
 -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던 2월에 오히려 주말 시간대, 특히 주간의 소비는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
 - 4월 이후의 급격한 소비 확대 역시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면서 나들이, 외식 등 주말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활동부터 재개되기 시작한 점의 영향으로 파악
 - 또한 4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 사용 역시 주로 주말 위주의 가족 단위 소비활동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임
- 가족 단위, 가정 내 소비경향의 증가에 따라 중국음식점, 정육점 등 집밥, 배달음식 등 가정 내 식사와 관련된 업종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덜한 반면, 외식 중심의 일식음식점은 더 큰 영향³
 - 상대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중국음식점에 비해, 매장 내 식사의 비중이 높은 일식회집 매출감소가 크다는 점에서 외식기피 추세를 일부 반영
 - 가정 내 식사 증가의 영향이 큰 정육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매출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 호황을 누린 업종에 해당⁴

3 중국음식점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배달앱 등을 통한 온라인 주문의 경우 해당 점포가 아닌 배달앱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배달음식 소비 증가 경향이 과소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격차는 더 클수도 있음

4 1월에 정육점 매출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설(1월 25일) 명절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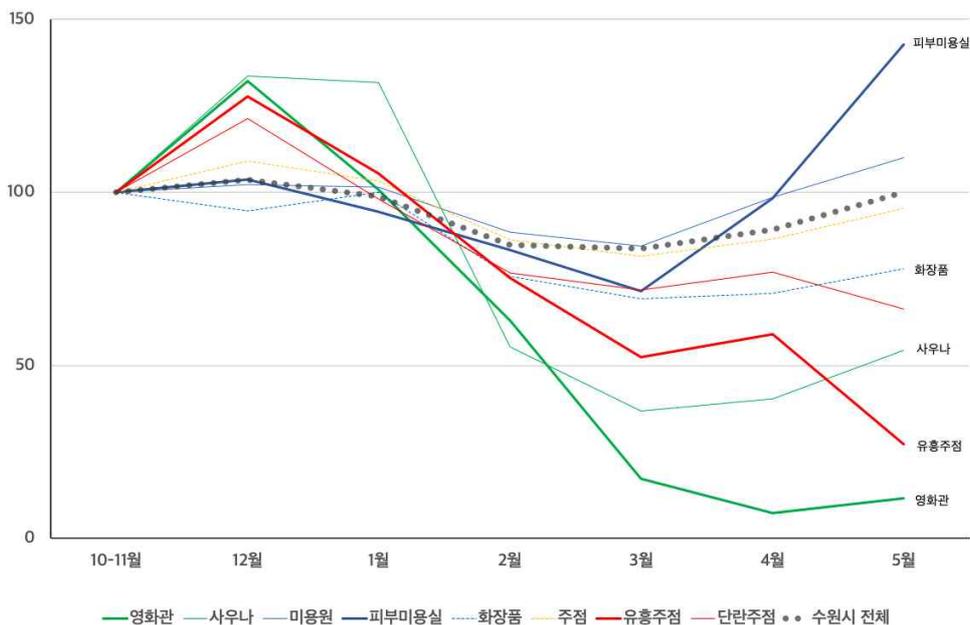
[그림 7] 사용시간대별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그림 8] 주요 외식 관련업종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2) 소비패턴을 바꾼 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영화관과 사우나의 경우 3월 매출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급격히 위축
 - 특히 영화관의 경우 3월 매출이 2019년 10-11월의 17%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며, 타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는 4월에도 오히려 매출이 감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점 등 유흥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 역시 크게 나타나며, 5월의 매출 감소가 타 시기에 비해 큰 것이 특징
 - 전반적인 소비가 회복되는 5월에 유흥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인해 유흥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기피가 커진 영향
- 외부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따라 특히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
 - 미용실, 피부미용실은 4월 이후 재난기본소득 및 보복소비의 영향으로 매출을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한데 반해, 화장품의 매출감소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
- 유사업종 내에서도 비필수적 소비 성향이 강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큰 매출감소에 직면
 - 영화관 > 사우나, 피부미용실 > 미용실, 유흥주점 > 주점 등 영향력의 차이 발생



[그림 9]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영향업종의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2 재난기본소득, 그 효과와 영향은?

- 4월 9일 수원시 및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시행
 - 재난기본소득 정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별 시민들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도 포함
 - 이를 위해 사용지역 제한, 온라인 및 대형가맹점 이용불가 등 각종 조치 수반
-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한 새로운 정책의 효과성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인 4~5월의 소비패턴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재난기본소득은 지원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전체의 매출변화 유도 자체가 성과에 해당
 - 다만 재난기본소득의 효과 파악에 있어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여러 활동들이 재개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고려 필요
- 우선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수원시 관내의 전체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목표는 1차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절정에 달한 3월에 비해 5월의 수원시 전체 매출액은 약 20% 가까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여전히 상당수 활동에 제약이 있는만큼, 매출이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직접적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영세가맹점과 전통시장 등이 타 유형에 비해 매출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정책 도입당시 고려했던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안전망 작동 효과 발생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규모 별로는 영세가맹점이, 상권 중에서는 전통시장 중심의 남문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 입증

[표 6] 재난기본소득 지급이후 유형별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구분	10-11월	3월	4월	5월
수원시 전체	100.00	83.71	89.25	100.06
영세가맹점	100.00	84.63	88.41	99.19
팔달문(남문) 상권	100.00	89.68	93.81	103.32

-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학원 등 코로나19 확산기에 가장 큰 매출감소가 발생한 업종이며, 의류 및 잡화 업종의 매출증가도 큰 편
 - 초중고 학원, 사무기기, 수영장 등 매출 증가율 상위에 포함된 다수의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으로,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수준 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
 -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매출증가 효과를 누린 것은 주로 의류 및 신발 등의 잡화, 가정용품 등으로, 이들 업종은 작년 수준 이상의 매출을 기록
 - 안경점(71.9%), 정육점(8.9%) 등 언론을 통해 주로 언급되었던 업종도 상당 정도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두드러지지 않는 수준
- 이에 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유흥 관련 분야와 주유소 등의 에너지 판매, 위탁급식업 등임
 - 외출 및 여행 자제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인해 주유소와 LPG 등 에너지 판매 관련 업종은 매출 감소세가 지속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 최소화, 실내다중이용시설 기피 등이 계속되면서 위탁급식업과 영화관의 매출 감소도 심각한 실정
- 재난기본소득이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필요

[표 7]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업종별 매출 증가 정도

증가율 상위 10개 업종			증가율 하위 10개 업종		
업종	3월 대비	10/11월 대비	업종	3월 대비	10/11월 대비
초중고학원	3,598.8%	-75.5%	유흥주점	-48.1%	-72.9%
사무기기	914.6%	-96.7%	인터넷종합Mall	-38.4%	14.2%
침구수예점	435.0%	166.9%	영화관	-32.4%	-88.5%
신발	351.8%	62.5%	주차장	-30.6%	-45.8%
예체능학원	286.1%	-36.8%	LPG(연료판매)	-16.5%	-16.2%
기타의류	188.0%	21.9%	공공요금	-14.3%	-1.4%
헬스크럽	182.4%	33.9%	위탁급식업	-10.8%	-63.6%
수영장	181.8%	-59.8%	주유소	-10.7%	-24.0%
구내매점	179.0%	-37.5%	단란주점	-7.6%	-33.7%
스포츠의류	157.9%	11.0%	인테리어	-4.6%	-18.4%

*10/11월 기준 월 승인건수 1천건 이상의 업종만을 대상으로 정리

IV. 요약 및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 간 그동안의 생활방식과 경제활동에 있어 급격한 불가항력적 변화에 직면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 재택근무 및 학습 도입,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사회활동 위축
 - 국제이동의 제한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국내 소비 역시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역시 직접적인 타격
- 수원의 지역상권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전체 신용카드 매출이 약 17% 정도 감소하였으며, 대면접촉 기반, 다중이용시설, 비필수적 소비 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 심화
 - 극장 등 여가 및 문화 관련 업종과 학원 등 교육관련 업종, 유흥 관련 업종에서 심각한 매출 감소 발생
 - 반면, 일상생활 기본소비 및 가정 내 여가활동과 관련한 업종은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폭이 적거나 오히려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나는 편
 - 상대적으로 위기대응력이 약한 영세업체들에게서 매출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영향의 장기 지속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 외부활동의 자제에 따라 주말, 거주지 인근의 소비는 영향을 적게 받는 반면,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일수록 매출 감소가 큰 편
 - 수원 외부 거주민의 수원 내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반해, 동일 행정구 내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 이로 인해 호매실 등의 주민생활 상권에 비해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상권과 팔달문 상권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크게 나타남
 -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인해 20대 이하의 소비가 타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으며, 성균관대 상권 등 대학가 상권 역시 직접적인 피해 노출
- 4월 이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소비활동은 이전 수준을 대체로 회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일수록 회복이 느린 편

- 2020년 5월에는 수원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
- 다만, 업종별, 상권별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컸던 유형들의 매출회복 정도가 이전의 감소 정도에 비해 느린 편
- 대면접촉에 기반한 특성을 가졌거나 유흥, 문화활동과 관련한 업종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에도 별다른 매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후속과제 제안

-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예비적 연구로 시의성을 가지지만,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는 점에서 여러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의 정도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지역경제 특성 분석 연구 추진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신용카드 매출 등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상권의 특성 심층분석 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재난대처능력 및 도시회복력 향상 가능
-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 관련 타 자료와의 비교 연구 및 지속적인 추적 분석 필요
 - 본 연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실제 사용행태 뿐만 아니라 지원금 소진 이후의 정책효과 지속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불가
 - 현금,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지원금 사용과의 비교 등을 통해 분야별·업종별 정책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필요
 - 향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기본소득제 도입 등 유사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 대비 효과, 시기와 추진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체계적 분석과 논의 진행 필요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김도영, 2019, 2000년 이후 수원시 도시공간과 주요 상권의 변화 양상,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원시청

윤신희,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양시 소비동향 분석 및 시사점, GYRI 이슈브리프 제17호, 고양시정연구원

이왕건, 2020,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제763호, 국토연구원

이유진·성영조, 2020,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감소와 시사점, GRI 정책Brief 2020-08, 경기연구원

최병대, 2020, '코로나19' 전·후 패러다임의 전환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민자치대학 제4회 온라인 특강 자료,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 최병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